

# 農村의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Family Life Cycle Model in the Rural Area

農村營養改善研修院 研究調查課

崔丁化 · 金和任 · 李炯兌 · 鄭容福

Dept. Reserch & Survey

Korean Rural Nutrition Institute, Suwon

Jeong Hwa Choi, Hwa Nim Kim, Dong Tae Lee, Yong Bok Chung

### 目 次

I. 序 論	가. 調查 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1. 問題의 提起	나. 年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2. 研究의 目的	다. 婚姻코호트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3. 研究의 制限點	라. 學歷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II. 理論的 背景	2. 農家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
1. 家族生活週期의 概念	3. 活用 方法
2. 韓國의 Family Life Cycle 研究	V. 要約 및 提言
III. 研究 方法	參考文獻
1. 農家 家族生活週期 實態調查	
2. 農家 家族生活週期 模型設定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農家 家族生活週期 實態調查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understand of rural family life cycle(FLC) and to get a FLC model for the twentieth in rural area.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603 farm households in rural a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The age of first marriage was 21.5 years old(urban : 22.4), the first bearing 23.2(24.2), the last bearing 31.7(32.6), the first child marriage 47.2(46.5), and the last child marriage 59.7(52.7). The number of child and interval were 3.9 persons and 2.9 years respectively. From the survey results, the rural family life cycle was established. ① Establishment stage(from the marriage to the 1st child birth) : 21-23 yrs. ② Extension stage(from

the 1st child birth to the last child birth) : 23-32 yrs. ③ Complete extension stage(from the last child birth to the 1st child's marriage) : 32-47 yrs. ④ Shrinking stage(from the 1st child's marriage to the last child's marriage) : 47-60 yrs. ⑤ Complete shrinking stage (from the last child's marriage to the death of husband) : 60-63 yrs. ⑥ Dissolution stage (from the death of husband to the death of wife) : 63-75 yrs.

2) In general, the older the age, the younger the first marriage age, the greater the number of child, and the longer the interval of child bearing. The last child's marriage was too last to have the period of recovery stage. In terms of FLC by marital cohorts, the later the year of marriage, the older the age of the first marriage and first baby bearing,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 and the faster the launching stage.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older age of the first marriage and the first baby bearing,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 and the shorter the interval of child bearing.

3) Two types of rural FLC model for the twentieth were formulated. Type A was formula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type B was formulated based on 「'88 population dynamics survey」 of Economic Planning Board(EPB).

「TYPE A」

\*Establishment stage(from the marriage to the 1st child birth) : 22.5-23.5 yrs. ① one child : the 1st child's marriage(49.5yrs.), the death of husband(64.2yrs.), the death of wife (71.7yrs.) ② two children : the last child's birth(25.7yrs.), the last child's marriage(51.7 yrs.) ③ three children : the last child's birth(27.9yrs.), the last child's marriage(53.9yrs.)

「TYPE B」

\*Establishment stage(from the marriage to the 1st child birth) : 25.3-26.3 yrs. ① one child : the 1st child's marriage(52.3yrs.), the death of husband(67.0yrs.), the death of wife (74.5yrs.) ② two children : the last child's birth(27.8yrs.), the last child's marriage(53.8 yrs.) ③ three children : the last child's birth(29.3yrs.), the last child's marriage(55.3yrs.)

I. 序 論

1. 問題 提起

人間의 一生은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 까지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生命現像 그 自體는 社會的, 歷史的, 經濟的인 모든 條件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生命現像의 주체인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이 家族이며, 家族이란 낱말의 포괄적인 의미는 그 구조와 기능, 역할이나 關係,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生活週期등을 달리하는 力動的인 點이 있다. 또 家族이 血연생활 공동체적인 社會의 기본단위를 이룬다는 點은 그 自體

가 特殊한 제도로써 생활체계를 갖고 結婚을 통한 關係등의 連繫性을 갖게 된다. 특히 家族의 정서적 연대는 어떤 조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며, 독립된 생활체계로써의 질서는 規範으로써 포괄되며, 자체적 기능과 역할분담은 生活體系의 조화를 이룬다. 家族은 諸機能을 代置할 適切한 다른 조직을 어떠한 社會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家族이란 單位를 廢止하고 새로운 理想的인 조직을 만든다고 假定해도 成功하리라는 보장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Murdock 1949).

그러므로 家族은 그 自體만으로 存在할 수 없고, 가족간 또는 社會와의 연대에 의해 발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볼때 家族 복지에 보다 깊은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공세권 외 1987).

현대 산업사회는 가족의 구조, 기능,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여러가지 변모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家族生活週期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산업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준비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의 변화, 자녀출산계획 및 피임법의 발달로 인한 자녀수의 제한과 터울조절, 의학의 발달 및 공중위생의 개선, 식생활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家族生活週期の 段階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家族生活의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되는바 그러한 問題를 發見하고 診斷하여 分析하는데 있어서 家族生活週期라는 개념(변인)이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즉 家族週期는 그것이 發生한 시대와 脈絡을 같이 하는 까닭에 각 時代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김영모 1965)

이러한 家族生活週期는 長期的 안목으로 週期の 각 단계에서 發生하는 諸問題의 可能性과 潛在性을 豫測하게 한다(Duvall 1971).

그러므로 家族生活의 變化를 이해하고 가족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家族生活週期가 어떤 변인보다도 우월하다(Lansing and Kish 1957; Blood and Wolfe 1960; Hill 1970; Aldous 1974; Duvall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家族生活週期 研究의 경우 이제까지는 단계 구분이 연구자마다 相異하게 설정되었고, 게다가 대부분이 횡단적 방법론에 의존한 실정이었으며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또는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도출된 것이 대부분으로 자료가 制約된 實情이었다(박혜인 1986, 88; 공세권 외 1987, 134).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WHO의 핵가족 주기의 기본 모형을 적용하여 주기단계 구분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임의성 배제와 연구 방법면에서의 기관 단위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꾸준한 종단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방법 도입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농촌생활

에서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면서 장·단기 생활설계를 수립·보완·변경하는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생활설계 수립시 가족생활주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농촌가족생활주기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20代 연령층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실제 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로 추정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어느 특정 집단의 하나의 모형이 아닌 초혼시기, 자녀수, 터울을 감안한 여러 형태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2. 研究의 目的

이 研究의 目的은 농촌의 家族生活週期 實態를 分析하고 앞으로의 농촌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추정 설정하여 농가의 장·단기 생활설계 및 농민의 교육·지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농촌의 가족생활주기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연령별로 본 농촌 가족의 가족생활주기는 어떻게 다른가?

세째, 농촌의 가족생활주기는 주부의 학력별로 어떻게 다른가?

넷째, 농촌의 가족생활주기는 주부의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앞으로의 농촌의 가족생활주기는 어떠한 것인가?

##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의 제한점은 ;

첫째, 표집수가 603호로 적은감이 있었으나, 컴퓨터 무작위 추출로 전체 한국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자의 임의성을 배제하였다.

둘째, 조사요령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조사자로 하여금 숙지하게 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조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로 인한 약간의 오차가 인정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조사의 응답자가 대부분 노년층이어서 기억에 의한 설문 문항에서는 다소 얼마간의 오차가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컴퓨터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 선정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임의성을 배제한 전국 단위의 농촌가족생활주기의 실증적 조사로써 반복면접을 통한 종단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理論的 背景

### 1. 家族生活週期的 概念

한 쌍의 남녀의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자녀의 출산, 성장과 함께 발전, 확대되며,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함으로써 축소되고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핵가족의 가족생활주기이다. 이것은 어느 가족이든지 例外없이 지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경로인데 이러한 時系列的 변화를 家族生活週期라고 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각 단계를 家族生活週期段階(Stage of Family Life Cycle)라 한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고찰하여 각 단계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가족생활의 리듬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家族生活를 유형화하는 것이다(Duvall 1971). 또한 이 家族生活週期는 家族이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연속되는 동안의 가족간의 생활을 강조하므로 가족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가족은 주기적 단계에 따라 인간관계와 역할기대가 다를뿐만 아니라 가족주기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는 가족 발달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Aldous 1974).

### 2. 韓國의 Family Life Cycle 研究

韓國 家族生活週期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60~70년대에 농촌 지역에 관한 가족생활주기 연구를 하였으나 조사년도가 너무 오래되어

시대감이 뒤떨어지는 감이 있다(최재석 1964; 김영모 1965; 여중철 1977).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주기와 가족형태에 대한 일련의 연구(옥선화 1980; 강희경 1982; 권희완 1982)를 시도하였으나, 上記한 研究에서 한결같이 부딪혔던 문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 추정상 필요불가결한 정보인 기혼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녀의 出家, 또는 결혼연령, 배우자 사망등에 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공세권의 1987).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유영주 1984; 박혜인 1985, 1986) 家族生活週期에 실증적인 조사를 도입한 연구를 시도했으나, 유영주(1984)는 주로 도시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박혜인은 1985년도에는 경북 일부 농촌 지역을 연구하였고, 1986년에는 전국 농촌(6개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조사원을 파견하기 용이했던 곳이어서 임의적인 집락표집이라 객관성이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했다.

공세권과 그의 동료들(1987)은 전국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을 파견하여 직접 설문 조사하여, 기혼모의 혼인코호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家族生活週期 研究 方法論

家族生活週期에 對한 연구 방법은 가족발달의 시간적 경과에 관한 자료의 조직적 수집, 그리고 정리로 요약된다.

가족생활주기 연구 방법론의 종류로는 횡단분석법(Cross Sectional Method), 사적회상법(Retrospective Hiseory-Taking Method), 코호트분석(Cohort Amalysis), 반복면접법(Segmented Longitudinal Panels)이 있으나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연구 방법은 가족의 시간적 경과를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하는 종단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표 1. 한국 가족 생활주기 실행연구 요약

연구자 (발표년도)	연구방법	사용변인	주기단계	비고
취재석 (1964)	사적회상법 연령코호트법	현재연령 결혼지속기간	초혼, 장남출생, 막내출생, 장남결혼, 막내결혼, 남편사망, 처의사망 (6단계)	결혼지속기간과 가족 종합 경제력 가상적주기모형설정
김영모 (1965)	사적회상법 혼인코호트법	혼인년도	〃	복합주기사례연구 미국 농촌가족과 비교 호적상 주기연구
여종철 (1977)	사적회상법	출생년도	〃	가족유형지속기간, 분가, 분거, 재산상속 고찰
육신화 (1980)	횡단분석법	〃	Duvall의 단계로 구분	미국 가족과 비교
김신희 (1982)	사적회상법 혼인코호트법	혼인년도	〃	가족주기, 자녀수, 단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강희경 (1982)	코호트분석	출산년도	초혼연령, 장남, 막내출생 장남, 막내결혼, 남편사망 처의사망, 장손출생. (7단계)	5년급간으로 출생코호트법 사용
권희완 (1982)	횡단분석	현재연령	WHO단계(6단계) 형성기, 확장기, 완전확장기, 수축기, 완전수축기, 해체기	가족주기단계 길이의 변화
유영주 (1984)	사적회상법 현재연령코호 트법	현재연령, 학력 지역, 인구세대 직업유무	형성기, 자녀출산및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6단계)	도시가족생활주기모형설정 20대연령층의 가족주기 모형추정
박혜인 (1985)	〃	현재연령, 인구세대 학력, 가족유형	〃	농촌가족주기의가설적모형 도시, 농촌별가족주기비교 추정, 경북 8개군
박혜인 (1986)	사적회상법 혼인코호트법	혼인년도	〃	전국농촌(6개도)
공세권 (1987)	혼인코호트법	혼인년도	가족형성기, 확장기 완전확장기, 수축기 완전수축기, 해체기	전국도시, 농촌대상, 가족의 구조적특징, 가족주기추정, 미혼모의 혼인코호트법 가족주기추정.

### III. 研究方法

#### 1. 農家 家族生活週期 實態調査

##### 가. 設問紙 作成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WHO의 핵가족주의 단계 구분 요인을 기준으로 한 남편과 부인의 현재나이 초혼연령, 혼인년도, 첫자녀 및 막내자녀 출산시연령, 첫자녀 및 막내자녀 결혼시 연령,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연령, 자녀수, 터울등을 조사하고, 일반사항으로는 가족수, 농가소득, 학력,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형태등이었으며, 질문지는 유영주(1984)와 박혜인(1985, 1986)의 문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가족주기 요인은 개방식 질문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해당란에 V하도록 하였다.

##### 나. 예비조사

조사자와 조사대상자들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수원 부녀자 교육생 40명과 경북 경산 봉화군, 충남 예산군의 3개 군 27명에게 '89년 3월중에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 다. 본조사

1) 조사시기: '89. 4. 10~4. 15(6일간)

2) 조사대상: '82년 농촌영양개선연수원에서 도 단위의 지역연구수를 고려한 지역확률표본 및 집락표출법과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표출한 67개지역 603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자의 임의성을 배제 할 수 있었다.

3) 조사방법: 67개지역 해당 시·군 생활지도사에게 조사요령을 시달한 후, 현지에 나가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특히 연령의 착오 방지를 위해 연령대조표를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생년, 월을 기록하게 한 후 연령대조표의 연령을 기록하게 하여 통일성을 기하였다.

4) 분석방법: 분석대상은 회수된 603매 중에서 각 항목별로 사용가능한 항목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은 농촌영양개선연수원

VAX-11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 2. 農家 家族生活週期 模型設定

실태조사 결과 제시된 가족생활주기 분포를 참고하여 앞으로 20대가 경험할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추정하였다.

### IV. 研究結果 및 論議

#### 1. 農家 家族生活週期 實態

##### 가.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 분포는 40~50대가 5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0대도 24.7%로 생각보다 많았다.

주부가 결혼한 년도는 60~70년대가 49.1%로 거의 과반수였으며, 주부의 학력은 국졸이하 특히 무학이 19.3%로 박혜인(1985) 연구의 국졸 이하 86.2%, 무학 44.7%에 비하여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주부의 종교는 불교가 43.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주부도 33.3%나 되었다. 주부의 출생지는 농촌의 97.3%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주부의 결혼형태는 중매결혼이 89.9%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중"정도가 57.7%였고 "하"도 22.2%나 되었다. 주부의 가사 이양 시기는 이양을 받은 주부가 80.8%였고 이양 받지 못한 주부도 19.2%나 되었다. 시부모를 모신 경험은 "있다"가 61.6%였으며, 그중 "모셨는데 돌아갔다"가 29.5%, "지금 모시고 산다"가 21.8%로 나타났다.

자녀의 결혼형태는 중매결혼이 66.5%로 아직까지 중매결혼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애결혼도 25.2%나 되어 앞으로는 연애결혼 형태가 늘어나리라 사료된다. 남편의 형제순위는 장남이 44.3%, 둘째 이하가 43.5%, 독자가 12.2%였으나, 독자도 장남에 포함시키면, 장남이 56.5%로 아직까지 장남이 농촌에 거주하는 경향이 둘째이하 보다 많았다. 가족수는 6~8명이 56.4%로 가장 많았고, 6명미만이 30.2%였으며, 평균 가족수는 6.4명으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변		인	N	%	변		인	N	%
주부연령	20代	33	5.4	주관적 생활수준	상	121	20.2		
	30代	149	24.7		중	346	57.7		
	40代	163	27.0		하	133	22.2		
	50代	184	30.5		계	600	100.1		
	60代이상	74	12.3		가사이양 시 기	이양받지못함	116	19.2	
계	603	99.9	30세미만	284		47.1			
주부혼인	1939이전	26	4.3	30세이상		203	33.7		
	1940~49	67	11.1	계		603	100.0		
	1950~59	133	22.1	시부모 모신경험		모신적이없다	230	38.3	
	1960~69	170	28.2		지금모시고산다	131	21.8		
	1970~79	126	20.9		모셨는데	177	29.5		
1980이후	81	13.4	돌아가셨다		62	10.3			
계	603	100.0	모셨는데						
주부학력	무 학	115	19.3	자 녀 결혼형태	지금은따로산다	600	99.9		
	국 졸	347	58.1		중 매			185	66.5
	중 졸	95	15.9		중매+연애	23	8.3		
	고 졸	40	6.7		연 애	70	25.2		
	계	597	100.0		계	278	100.0		
주부종교	불 교	262	43.7	남 편 형제순위	장 남	266	44.3		
	기독교	98	16.3		독 자	73	12.2		
	천주교	20	3.3		둘째이하	261	43.5		
	없 다	200	33.3		계	600	100.0		
	기 타	20	3.3		가족수	6명미만	182	30.2	
계	600	99.9	6~8명	340		56.4			
주부출생지	농 촌	540	97.3	9명이상		81	13.4		
	어 촌	15	2.7	계	603	100.0			
	계	555	100.0	가족형태	핵가족	362	60.3		
주 부 결혼형태	중 매	529	87.9		확대가족	238	39.7		
	중매+연애	22	3.7		계	600	100.0		
	연 애	51	8.5	농가소득	300만원이상	69	11.4		
	계	602	100.1		300~499	156	25.9		
					500~699	151	25.0		
			700~899		99	16.4			
			900이상		128	21.2			
			계	603	99.9				

표 3. 연령별 가족생활주기 분포실태

현재 연령별 (세)	평균 연령	초 혼	첫자녀 출 산	막 내 출 산	첫자녀 결 혼	막 내 결 혼	첫자녀 진 수	막 내 진 수	자녀수 (명)	터 올 (년)	배우자 사 망
20代	22.5 (28)	22.9 (28)	25.5 (28)	-	-	-	-	-	2.2 (29)	2.2 (21)	-
30代	23.2 (149)	23.5 (149)	27.8 (149)	-	-	36.6 (5)	-	-	2.7 (149)	2.5 (138)	29.5 (2)
40代	21.9 (163)	23.0 (160)	31.0 (163)	43.8 (24)	48.7 (3)	41.4 (103)	44.3 (26)	4.0 (161)	2.5 (157)	2.5 (157)	41.4 (5)
50代	20.6 (184)	23.2 (184)	33.7 (179)	47.6 (139)	53.2 (12)	44.1 (154)	51.2 (87)	4.6 (184)	3.1 (177)	3.1 (177)	45.8 (18)
60代	19.2 (74)	23.2 (71)	38.8 (71)	47.4 (67)	63.3 (31)	44.5 (59)	59.7 (59)	5.3 (73)	4.0 (68)	4.0 (68)	57.2 (14)
분 산	F값	** 26.89	** 0.51	** 100.65	** 6.78	** 15.91	** 13.39	** 103.08	** 71.60	** 15.81	** 7.83
	분 석	df	597	591	589	229	45	321	171	595	560

\*\*p<.01 ( ) : 응답자수

주) 터올 :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사이의 터올임.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는 3.9명이었다. 농가소득은 300~700만원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농가소득은 692만원으로 전국 농가소득 813만원에 비하여 적었으며, 박혜인(1985, 7)의 374만원보다 많았다.

나. 年令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연령별 농촌 가족생활주기 분포 실태는 주부의 연령을 10년씩 등간격으로 나누었으나 60·70년대는 응답자수가 적어서 60대 이상으로 편의상 한 그룹으로 묶었다. 연령별 가족생활주기 분포 실태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농촌 가족의 초혼연령은 현재연령이 적을수록 높아졌으며(20대 : 22.5, 60대 : 19.2) 첫자녀 출산 연령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막내자녀 출산시 연령, 즉 단산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터올이 좁아지고(4.0년→2.2년) 자녀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5.3명→2.2명). 20대는 아직 단산연령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추세로 보아 30대의 2.7명에는 못미칠 것이라 사료된

다. 이것은 계속되는 인구억제정책의 결과이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과라고 사료된다. 막내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60대에서는 63.3세로 바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회복할 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노후 문제가 대두되었다. 배우자 사망시 주부의 연령은 전체 조사대상자중 남편이 사망한 주부는 39명으로 응답자수가 너무 적어 각 연령층을 대표할 수치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참고자료로서 제시하였다.

다. 婚姻코호트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혼인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 분석은 결혼연도를 연구자가 편의상 10년씩 등간격으로 구분하였으며, 1939년 이전은 한 그룹으로 묶었다. 분석 결과 50~60년대에 혼인한 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초혼 연령은 혼인연도가 늦을수록 초혼연령도 높아졌으며, 첫자녀 출산시 연령도 높아졌다(표 4, 그림 1).

70년대와 80년대에 혼인한 주부의 초산 연령은



표 4. 혼인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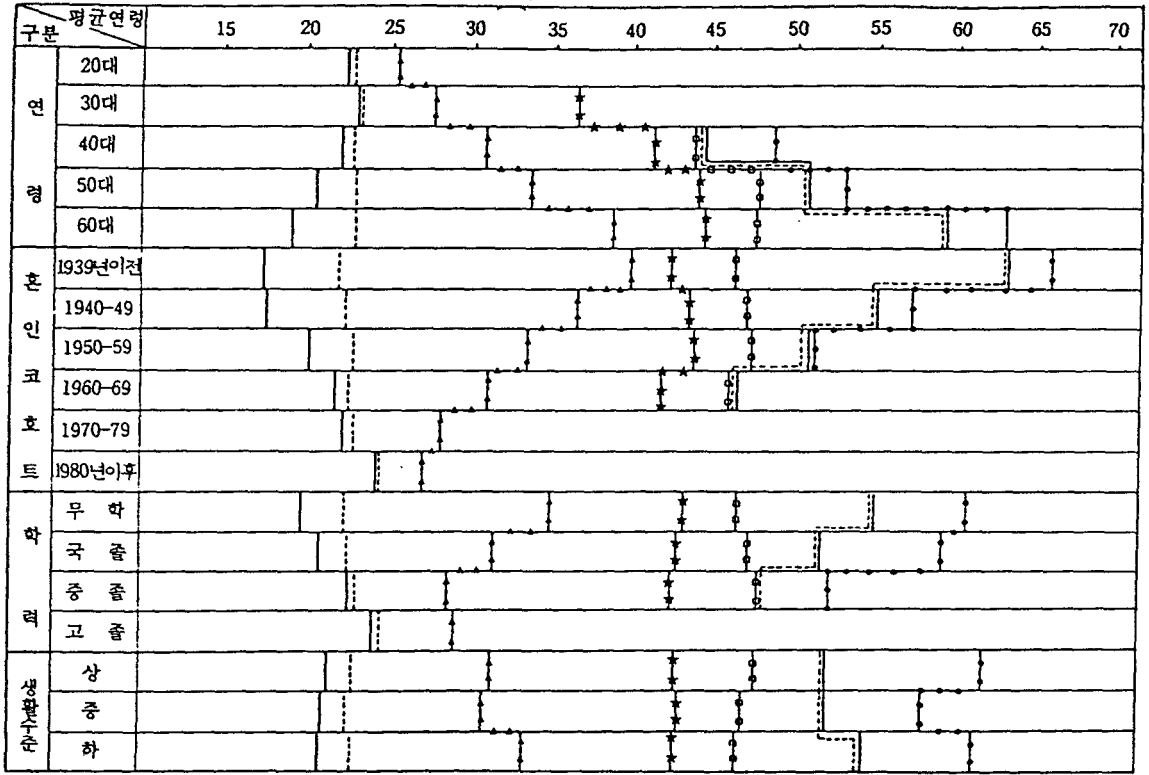
혼인 코호트 (세)	평균 연령	초 혼	첫자녀 출 산	막 내 출 산	첫자녀 결 혼	막 내 결 혼	첫자녀 진 수	막 내 진 수	자녀수 (명)	터 울 (년)	배우자 사 망
1939년 이 전	17.7 (26)	22.2 (25)	40.2 (24)	46.6 (24)	66.2 (20)	42.6 (20)	63.6 (23)	5.4 (25)	5.1 (23)	65.0 (6)	
1940 ~1949	17.7 (67)	22.9 (65)	36.7 (65)	47.3 (59)	57.1 (15)	43.7 (58)	55.4 (49)	5.2 (67)	3.4 (64)	50.5 (12)	
1950 ~1959	20.5 (133)	23.1 (133)	33.6 (130)	47.6 (108)	51.6 (11)	44.1 (111)	51.1 (66)	4.6 (133)	3.0 (128)	47.0 (9)	
1960 ~1969	22.1 (170)	23.0 (167)	31.4 (169)	46.1 (39)	-	42.0 (133)	46.3 (34)	4.1 (168)	2.7 (164)	41.4 (10)	
1970 ~1979	22.7 (126)	23.2 (126)	28.4 (126)	-	-	-	-	3.1 (126)	2.6 (123)	29.5 (2)	
1980년 이 후	24.6 (76)	24.6 (76)	27.4 (76)	-	-	-	-	2.1 (77)	2.3 (59)	-	
분 산 분 석	F값	** 69.78	** 2.79	** 63.33	1.00	** 26.99	* 2.95	** 60.84	** 67.23	** 15.92	** 10.10
	df	597	591	589	229	45	321	171	595	560	38

\*\*p<.01 \*p<.05 ( ) : 응답자수  
주) 터울 :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사이의 터울임.

표 5. 학력별 가족생활주기분포

학력 (세)	평균 연령	초 혼	첫자녀 출 산	막 내 출 산	첫자녀 결 혼	막 내 결 혼	첫자녀 진 수	막 내 진 수	자녀수 (명)	터 울 (년)	배우자 사 망
무 학	20.0 (116)	23.0 (113)	35.1 (112)	46.6 (79)	60.9 (21)	43.5 (92)	55.4 (61)	4.7 (116)	3.6 (109)	50.9 (17)	
국 졸	21.4 (347)	23.0 (345)	31.6 (343)	47.4 (142)	59.3 (23)	42.9 (210)	51.9 (105)	4.0 (345)	2.8 (332)	47.3 (20)	
중 졸	22.9 (95)	23.5 (95)	29.0 (95)	47.9 (9)	52.5 (3)	42.9 (20)	48.0 (6)	3.1 (95)	2.3 (89)	46.0 (1)	
고 졸	24.5 (40)	24.9 (39)	29.3 (40)	-	-	-	-	2.4 (40)	2.5 (31)	35.0 (1)	
분 산 분 석	F값	** 31.55	** 3.33	** 26.59	0.84	1.01	0.33	** 6.45	** 32.79	** 14.11	0.74
	df	597	591	589	229	45	321	171	595	560	38

\*\*p<.01 ( ) : 응답자수  
주) 터울 :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사이의 터울임.



초혼연령 첫자녀출산연령 막내자녀출산연령 첫자녀첫자녀결혼진수 첫자녀첫자녀결혼진수 막내자녀결혼진수 막내자녀결혼진수

그림 1. 연령, 혼인코호트, 학력, 생활수준별 가족생활주기 분포도.

각각 23.2세와 24.6세로 초혼연령인 22.7세와 24.6세와의 차이가 각각 0.5세와 0세로 정상적인 혼인으로 인한 첫자녀 출산기간인 10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혼인 즉시 첫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최소한의 소요기간인 10개월에는 못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요즈음 대두되는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진출하여 여성을 사귀다음 임신후 결혼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혼인연도가 최근일수록 자녀수는 줄어들었고 터울은 좁아졌다.

라. 學力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표 5와 그림 1을 통하여 학력별 가족생활주기를 고찰해 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연령과 초산

연령, 첫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늦어지는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막내자녀 출산시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낮아졌으며, 자녀수는 줄어들었고, 터울은 좁아졌다. 즉 교육정도가 고학력일수록 늦게 혼인하여 더 적은수의 자녀를 갖고, 그 자녀 역시 저학력 부모의 자녀에 비하여 늦게 결혼한다. 또한 자녀수가 적은 까닭으로 막내자녀 결혼시 부모의 연령은 더 낮아지고, 그 결과 탈양육기를 빨리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표 3의 연령별 분포에서 살펴본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과 첫자녀 출산시 주부의 연령은 높아지고 자녀수가 줄어드는 경향과 일치하며, 표 4의 혼인코호트별 분포에서의 최근에 결혼한 20, 30대 연령층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교육 기회의 보편화와 교육열 향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진 때문이다. 또한 부모

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진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혼인전 외지(도시)로 독립을 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뚜렷이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고학력의 부모일수록 자기 자식에게 힘든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저학력의 부모보다 더 강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농촌 잔존인구의 노령화 문제의 가속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 生活水準別 家族生活週期 變化 및 分布

생활수준별 가족생활주기 분포는 표 6, 그림 1과 같으며, 주부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가족생활주기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上·中·下,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생활주기의 다른 연구(김영모 1965, 2; 박혜인 1987, 129)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생활수준 즉 계층에 따라서는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재증명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객관적 계층을 통한 재검토 즉, 농가소득이 가족생활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農村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로써 농촌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농촌가족생활주기 모형 I, II는 모두 WHO의 핵가족 주기의 기본 모형 기준에 의하여 형성기, 확장기, 완전확장기, 수축기, 완전수축기, 해체기의 6단계로 구분하여 추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I)은 본 조사 응답자들의 평균 가족생활주기를 뜻한다. 실제로 가족생활주기는 해당연령층 또는 해당 집단의 수치로 제시될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전체 평균 가족생활주기 자체는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지표, 기준으로써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정 모형 (II)는 현재 20代 연령층이 앞으로 경험할 가족주기를 가상적으로 추정 설정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활설계를 수립, 계획적인 생활을 해보자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가. 農村 家族生活週期 模型(I)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설정된 농촌 가족생활주기는 표 7의 전체사례의 평균 연령을 참조하여 설정하였고,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은 WHO의 핵가족 주기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형성기(21~23세) : 결혼으로부터 첫자녀 출산시 까지의 약 1~2년간.
- 2) 확장기(23~32세) : 첫자녀 출산부터 막내자녀 출산시까지 약 9년간.

표 6. 생활수준별 가족생활주기분포

생활 수준	평균 연령 (세)	초 혼	첫자녀	막 내	첫자녀	막 내	첫자녀	막 내	자녀수 (명)	터 울 (년)	배우자 사망
			출 산	출 산	결 혼	결 혼	진 수	진 수			
상	21.7 (123)	23.5 (121)	31.8 (119)	47.7 (47)	62.0 (9)	43.1 (57)	52.4 (34)	3.9 (122)	2.5 (111)	45.5 (2)	
중	21.5 (344)	23.0 (340)	31.1 (341)	47.1 (123)	58.2 (26)	43.1 (180)	52.4 (94)	3.9 (343)	2.9 (329)	49.4 (17)	
하	21.4 (131)	23.5 (131)	33.1 (130)	47.0 (60)	61.4 (11)	43.0 (85)	54.9 (44)	4.1 (131)	3.2 (121)	47.9 (20)	
분 산 분 석	F값	0.38	1.27	** 5.99	0.37	1.00	0.02	1.90	0.67	** 5.43	0.08
	df	597	591	589	229	45	321	171	595	560	38

\*\*p<.01 ( ) : 응답자수

주) 터울 :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사이의 터울임.

표 7. 전체사례 평균연령

구분	초혼	첫자녀출산	막내출산	첫자녀결혼	막내결혼	첫자녀진수	막내진수	자녀수(명)	터울(년)	배우자사망	결혼지속년수
주부	21.5 (598)	23.2 (592)	31.7 (590)	47.2 (230)	59.7 (46)	43.2 (322)	53.2 (172)	3.9 (596)	2.9 (561)	48.5 (39)	26.5 (598)
가구주	24.2	25.9	34.4	49.9	62.4	45.9	55.9	3.9	2.9	-	26.5

( ) : 응답자수

3) 완전확장기(32~47세) : 막내자녀 출산부터 첫자녀 결혼시까지 약 15년간

4) 수축기(47~60세) : 첫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시까지 약 13년간.

5) 완전수축기(60~63세) : 막내자녀 결혼부터 남편사망시까지 약 3년간.

6) 해체기(63~75세) : 남편사망부터 본인사망까지 약 12년간.

이상의 자료로써 농촌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도표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모형설정시 막내결혼시 주부의 연령까지는 전체사례의 평균연령을 적용하였으며, 남편사망과 본인사망 추정 연령은 '88년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조사 결과인 남자의 평균수명 66.0세와 여자의 평균수명 74.5세를 적용하였으며, 여기에서 남편과 부인의 평균 연령차이 2.7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63.3세인때에 남편의 사망을 결함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농촌가족도 일련의 연구(유영주 1984, 127; 박혜인 1985, 10; 1986, 98)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출산, 양육, 그리고 교육을 끝내고 나면 바로 노년기, 즉 완전수축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농촌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기와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는 것

이 도시가족과 다른 특징으로 나타난다. 완전확장기인 약 15년간 말이는 유년기, 학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며 막내자녀 출산 이후에도 양육과 교육의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계기도 겨를도 없이 완전수축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짧지 않은 노년기 즉 완전수축기와 해체기를 결국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것도 남편사망 이후 약 12년간을 독신으로 해체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 차녀 낳기의 보편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 40대 후반에 중년기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경제적 회복기의 개념도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추세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세대간의 의식차이 또한 급변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다른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본인 스스로도 나머지 여생에 대한 노후준비를 등한시하지 말고 계획적인 생활과 삶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지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다. 초혼연령은 도시 보다는 농촌이 낮게 나타

Ⅰ	Ⅱ	Ⅲ	Ⅳ	Ⅴ	Ⅵ	
형성기	확장기	완전확장기	수축기	완전수축기	해체기	
초혼 출산 (21.5)	첫자녀 출산 (23.2)	막내출산 (31.7)	첫자녀결혼 (47.2)	막내결혼 (59.7)	남편사망 추정(63.3)	본인사망 추정(74.5)

(21.5) (23.2)

그림 2. 농촌가족생활주기 모형(I).

표 8. 선행연구와의 비교

구 분	연구자	초혼연령	첫자녀 출산	막내자녀 출산	첫자녀 결혼	막내 결혼
1984	유영주 (도시)	22.4	24.2	32.6	46.5	52.7
1985	박혜인 (농촌)	20.1	22.6	33.0	44.7	58.7
1989	본조사 (농촌)	21.5	23.2	31.7	47.2	59.7

표 9. 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

모 형	연 령 (세)	초 혼	첫자녀	막 내	첫자녀	막 내	남 편	본 인
			출 산	출 산	결 혼	결 혼	사 망	사 망
A 型	1자녀 型	22.5	23.5	23.5	49.5	49.5	64.2	71.7
	2자녀 型	(23.3)	23.5	25.7	49.5	51.7	64.2	71.7
	3자녀 型		23.5	27.9	49.5	53.9	64.2	71.7
B 型	1자녀 型	25.3	26.3	26.3	52.3	52.3	67.0	74.5
	2자녀 型	(28.4)	26.3	27.8	52.3	53.8	67.0	74.5
	3자녀 型		26.3	29.3	52.3	55.3	67.0	74.5

( ) : 남편의 초혼연령

· A型 : '89. 4. 농영연 조사 결과 20대 초혼연령 기준

· B型 : '88.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조사결과 결혼연령 기준

· 첫자녀 출산은 결혼후 곧 바로 출산하는 것으로 간주함

· 터울은 A型은 실태조사 결과인 2.2년, B型은 1.5년을 기준함

· 자녀 결혼연령은 A, B型 모두 26세로 추정(∵ '88 인구동태결과 남 : 28.4, 여 : 25.3세임)

· 사망추정 연령은 「한국의 사회지표」(1987)에 제시된 “연령별 기대연령 (Life Expectancy)”를 참조하여, A, B型 모두 20대 연령층의 中位數인 25세를 기준하여, 남자의 기대여명 41.7세, 여자의 기대여명 49.2세를 현재연령에 더하여 산출함. ex) 25.3세 + 49.2세 = 74.5세.

났고, 농촌가족이 도시가족에 비하여 확장기와 자녀의 혼인기간이 대체로 긴것은 자녀수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며 여성의 평균수명 74.5세를 기준으로 농촌의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기간을 산출해 보면 53년이 된다. 이는 박혜인(1985, 10)의 연구 결과인 49년보다 3년이 길어졌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 나. 農村 家族生活週期 推定模型(II)

앞으로의 농촌가족생활주기를 예측하여 모형을 설정한 선행연구(유영주 1984; 박혜인 1985, 1986, 1987)에서는 추정 모형 설정시 평균자녀수를 적용하여 모형을 한가지씩만 제시하였으나 가족생활주

기란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본 조사의 20대 연령집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추정 설정한 A형과 '88인구동태조사 결과의 자료를 토대로 가상적으로 추정 설정한 B형을 그들 집단이 경험할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A.B형 모두 자녀수에 따른 1.2.3자녀 형으로 구분 설정하였다. 이것은 평균자녀수를 적용하여 가상적으로 모형을 추정 설정하면 더욱더 간단해 지겠으나, 농촌지도 사업에 반영, 농촌 부녀자들의 이해도와 비교가 용이해지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초혼연령은 A형은 22.5세, B형은 25.3세, 첫자녀

표 10. 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의 단계별 지속기간

모형	가족주기단계별 기간 (년)	전체기간 (결혼 ~본인사망)	형혼 (결혼 ~첫자녀출산)	확장기 (첫자녀출산 ~막내출산)	완전화장기 (막내출산 ~첫자녀결혼)	수축기 (첫자녀결혼 ~막내결혼)	완전수축기 (막내결혼 ~남편사망)	해체기 (남편사망 ~본인사망)
A형	1자녀형	49.2	1.0	-	26.0	-	14.7	7.5
	2자녀형	49.2	1.0	2.2	23.8	2.2	12.5	7.5
	3자녀형	49.2	1.0	4.4	21.6	4.4	10.3	7.5
B형	1자녀형	49.2	1.0	-	26.0	-	14.7	7.5
	2자녀형	49.2	1.0	1.5	24.5	1.5	13.2	7.5
	3자녀형	49.2	1.0	3.0	23.0	3.0	11.7	7.5

출산시 주부의 연령은 A·B형 모두 결혼후 곧 바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터울은 A형은 실태조사 결과인 2.2년 B형은 1.5년을 적용하였다. 첫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일련의 연구에서는 첫자녀의 출산시 주부의 연령에 부모의 초혼연령을 더 하여 산출하였으나(유영주 1984, 125; 박혜인 1985, 11) 20대 연령층의 자녀 세대에서 초혼연령은 현재 그들 부모세대의 초혼연령보다 빨라질지 늦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젊은층일수록, 또한 고학력일수록 만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88인구동태조사 결과에서도 그 경향이 역력하므로 본고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초혼연령을 첫자녀와 막내자녀 모두 26세를 적용하여 추정한 가족생활주기는 표 9와 같으며, 이를 다시 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의 단계별 지속기간으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본고의 남편과 본인의 사망추정연령은 「한국의 사회지표」(1987)에 제시된 “연령별 기대여명(Life Expectancy)”를 참조하여 A·B형 모두 20대 연령층의 중위수인 25세를 기준하여 남자의 기대여명 41.7세, 여자의 기대여명 49.2세를 현재연령에 더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A형의 사망추정연령은 남자 65.0세 여자 71.7세로 산출되었다. 여기에서 남편과 부인의 평균연령차 0.8세를 감안하여 부인의 평균연령이 64.2세때 남편의 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형은 남자의 사망추정연령은 70.1세, 여자는 74.5세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서 남편과 부인의 평균연령차 3.1세를 감안하여 부인의 평균연령이 67.0세때 남편의 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 제시하였다. 이상의 수치들 도표화한 것이 그림 3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앞으로 20대 젊은층의 농촌가족생활주기는 결혼에서 본인사망까지의 전체기간은 A·B형 모두 49.2년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전체 49.2년 중에서 완전확장기가 1자녀형일때는 A·B형 모두 26.0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2·3자녀형으로 갈수록 B형이 A형보다 그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기와 수축기는 1자녀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완전확장기와 완전수축기에 포함됨.) 2·3자녀형은 터울 만큼 길어지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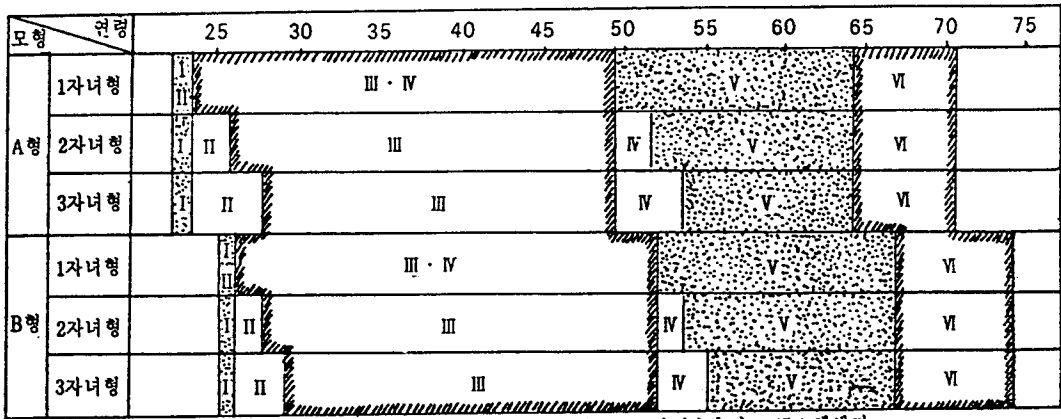
표 11. 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

모형	연령 (세)	초혼	첫자녀	막내	첫자녀	막내	남편 사망	본인 사망
			출산	출산	결혼	결혼		
A형	1자녀형	22.5 (23.3)	23.5	23.5	49.5	49.5	64.2	71.7
	2자녀형		23.5	25.7	49.5	51.7	64.2	71.7
	3자녀형		23.5	27.9	49.5	53.9	64.2	71.7
B형	1자녀형	25.3 (28.4)	26.3	26.3	52.3	52.3	67.0	74.5
	2자녀형		26.3	27.8	52.3	53.8	67.0	74.5
	3자녀형		26.3	29.3	52.3	55.3	67.0	74.5

( ) : 남편의 초혼연령

· A형 : '89. 4. 농영연 조사 결과 20대 초혼연령 기준

· B형 : '88.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조사결과 결혼연령 기준



I : 형성기. II : 확장기. III : 완전확장기. IV : 수축기. V : 완전수축기. VI : 해체기.

그림 3. 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II).

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와 터울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가 결혼하고 부터 남편사망까지의 완전수축기는 A·B형 모두 1자녀형은 14.7년으로 나타났으나 2·3자녀형으로 갈수록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수가 작용하기 때문). 남편사망후 부터 본인사망까지의 해체기는 7.5년으로 나타나 노후에 부인 혼자 생활하는 독신기간이 뚜렷이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1자녀형 일때 A형은 49.5세, B형은 52.3세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바로 완전수축기로 접어들어 이른바 이 시기부터는 "경제적 회복기"의 기회로 삼고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둘이 남은 부부는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여야 하며

세대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빠른 시간내에 적응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A·B형 모두 자녀수에 따라서 그 주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 부부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자녀의 출산이야말로 행복한 농촌생활의 삶을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A·B형의 차이는 결혼연령에 의하여 생기는 만큼 적절한 시기의 결혼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 그러나 요즘 심화되어지는 농촌 총각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때에 일부분이나마 농촌환경개선(부업, 변소, 목욕실등)으로 도시 처녀들이 살고 싶어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전통적인 시집살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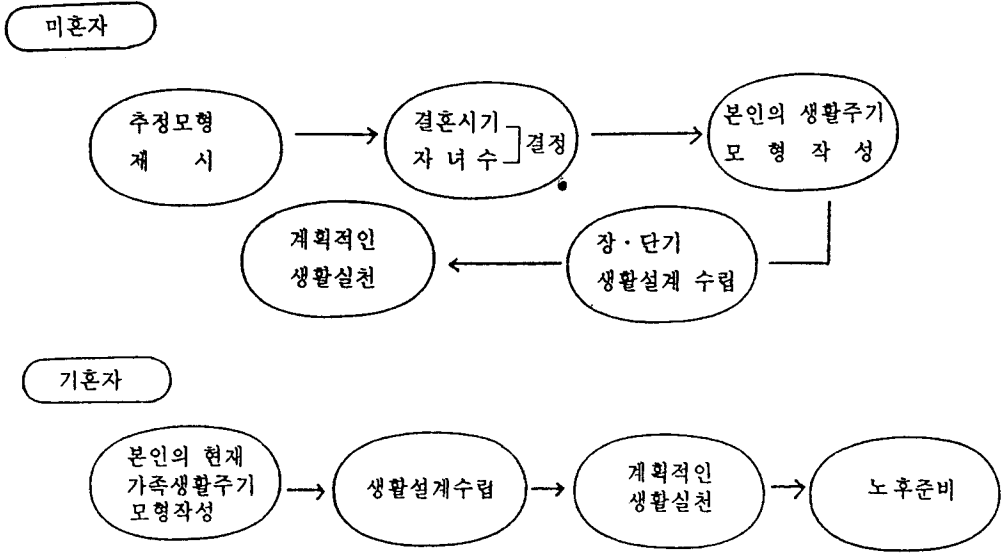


그림 4. 가족생활주기 추정모형 활용방법.

대한 관념과 힘든 노동, 농사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계화와 의식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된다.

농촌가족생활주기 모형(I)과 농촌가족생활주기 추정모형(II)의 차이는 모형(I)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60대로 노년기에 접어들지만 추정모형(II)에서는 50대로 중년기라는 점이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나타나는 II형에서도 가족주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혼인연령과 자녀수이니 만큼 적절한 시기의 결혼과 적당한 자녀수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대두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농촌 할것 없이 자녀수, 터울, 혼인연령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주기의 차이가 둔감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 3. 生活方法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 V. 要約 및 提言

전국 67개지역 603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농촌가족생활주기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가족생활주기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이 낮았으며(20대 : 22.5세→60대 : 19.2세) 자녀수는 많았고 터울은 길어졌다.

2) 결혼연도가 최근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초산연령이 동시에 높아졌으며 자녀수는 줄어들고 막내가 집을 떠나는 시기도 빨라지는 경향이였다.

3)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첫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에 막내자녀 출산과 막내자녀 결혼시 주부의 연령은 낮아졌고, 자녀수는 줄어들었으며 터울은 좁아졌다.

4) 주부의 주관적인 생활수준별로 살펴 본 가족생활주기는 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5)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으로 한국농촌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I)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형성기(21~23세) : 결혼으로부터 첫자녀 출산시기까지 약 1~2년간.

② 확장기(23~32세) : 첫자녀 출산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 약 9년간.

③ 완전확장기(32~47세) : 막내자녀 출산으로부터 첫자녀 결혼시까지 약 15년간.

④ 수축기(47~60세) : 첫자녀 결혼으로부터 막



내자녀 결혼까지 약 13년간.

⑤ 완전수축기(60~63세) : 막내자녀 결혼부터 남편사망까지 약 3년간.

⑥ 해체기(63~75세) : 남편사망부터 본인 사망까지 약 12년간.

위와 같은 가족주기의 특징은 자녀를 결혼 시킨 직후 완전수축기(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곧 바로 해체기를 경험하게 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노년기는 연장되는데, 노후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이 시기를 맞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20대가 경험할 농촌가족생활주기 추정 모형(II)을 설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의 가족생활주기는 동일 집단에 대한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반복면접을 통한 종단적인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인력, 경제적인 여러가지 제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본 조사 농가에 대한 일정기간 후의 반복조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만 한국농촌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가족수, 가사이양기, 농가소득, 시부모 모신경험에 의한 가족생활주기 실태에 대한 계속적인 고찰로, 이러한 요인들이 가족생활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 농촌 잔존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생활 대비에 대한 지도와 아울러 농촌환경개선 및 의식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농촌 청소년들의 이농 문제의 원인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매스컴의 영향으로 도시·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동질화 속도가 가속화 될때,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강희경 : 출생코호트별로 본 우리나라 가족주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논문집 24 : 19-82
- 2) 강희경 외 2인 : 한국의 가족 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982
- 3) 강희석·최인현·임종수 :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1(2) : 72-81, 1982
- 4) 권희환 :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 변천에 대한 고찰. 인구보건논집 1(1) : 69-71, 1981
- 5) 공세권 외 4인 :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988
- 6) 김선희·전영수 : 도시가족의 생활주기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8 : 1982
- 7) 김영모 : 한국 농촌가족의 생활주기 측정. 숭실대학 농촌사회연구 1 : 1965
- 8) 김주수·이희배 : 가족관계학. 서울 : 진명출판사. 1981
- 9) 김혜선 외 2인 : 가족관계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1986
- 10)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통계연보 : 139, 1989
- 11) 박혜인 : 한국 농촌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변화.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1 : 1-13, 1985
- 12) 박혜인 : 한국 농촌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2 : 87-101, 1986
- 13) 박혜인 : 혼인코호트별 농촌 가족생활주기 분석. 심재 허필숙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123-133, 1987
- 14) 박혜경 : 노후생활을 위한 가계 설계, 한국인의 노후 복지설계.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열매문고 9 : 25-42, 1979
- 15) 서병숙·임정빈 : 가정관리학·동명사, 1988
- 16) 여중철 : 한국 농촌의 가족주기와 가족유형. 한국문화인류학 9 : 1977

- 17) 옥선화 : 한국 가정의 가정 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논집 1(1) : 17-27, 1980
- 18) 유영주 :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1984
- 19) 유영주 :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 : 111-128, 1984
- 2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한국인의 장기 생활설계연구.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열매문고 11 : 36-63, 1980
- 21) 최재석 : 한국가족의 주기. 김두헌박사회갑기념논집 : 1964
- 22) 최재석 : 현대가족연구 : 일지사, 1982
- 23) 최재석 : 한국가족제도사연구 : 일지사, 1983
- 24) 한국일보 : 88경제기획원 인구동태조사결과 : 1989. 11. 2(7)
- 25) 한국인의 생명표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1980
- 26) 日本國民生活研究所 : 世帯動態 と 生活構造-日本のライフ・サイクル. 東洋經濟新報社 : 1968
- 27) 日本國民生活研究所 : 라이프・サイクル. と 生活行動に 關する研究. 國民生活研究 8 : 1969
- 28) 森岡清美 : 家族週期論 : 培風館 : 1985
- 29) Aldous J : *Family careers-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John Wiley & Sons. New York : 1978
- 30) Bigelow HF : *Family finance*, rev. ed. Philalphia JB Lippincott : 1953
- 31) Blood RO & Wolfe DM :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1967
- 32) Duvall EM :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 1971
- 33) Duvall EM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JB. Lippincott Company, Philadelphia : 1977
- 34) Hill R :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A longitudinal study of changing family patterns of planning achievement*-Schenkman Publishing Co., Inc. Cambridge, MASS : 1980
- 35) Kirpatrick EL : *The life cycle of the farm family. Wisconsin AES Research Bulletin* Madison : 1934
- 36) Lansing JB and Kish L :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55) : 512-519, 1957
- 37) Murdock GP : *Social structure*. New York : 1949
- 38) Ruza First-Dilić : *The life cycle of the yugoslav peasant farm family. JMF* 36(4) : 819-826, 1974
- 39) Sorokin P & Zimmerman CC & Calpin CJ : *A systematic source book in rural soci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1931
- 40) WHO : *Statistical Indices of Family Health Geneva* : 32, 1976